『醫宗金鑒·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의 桂枝湯證에 대한 硏究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1]· 慶熙大學校 東西新醫學病院[2]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經穴學敎室[3]·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4]
이광재[1] · 김선형[2] · 김성진[3] · 신미란[4] · 방정균[1] *

A Study on Chinese Classic Medical Scripture, 『Uijonggeumgam · Sang-hanronju(醫宗金鑒 · 傷寒論注)』's Gyejitang (桂技揚)

Lee Kwang-jae[1] · Kim Sun-hyung [2] · Kim Sung-jin[3] · Shin Mi-ran[4] · Bang Jung-kyun[1] *
[1]Dept.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2]Dept. of Sasang Constitution Kyung-Hee East-West Neo medical center
[3]Dept. of Oriental Medical Mer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4]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Ogyeom(吳謙) was a famous doctor in the early Cheong(淸) dynasty. The year of birth and death is unknown. He was a chief(院判) of the *Taeuiwon*(太醫院) in the early Cheong(淸) dynasty 1732-1759 . He wrote 『Uijonggeumgam(醫宗金鑒)』 which was famous at the time as well, Thus it was used in the medical curriculum during the Cheong(淸) dynasty. 『*Jeongjeongjunggyeongjeon seo*(訂正仲景全書)』 is a part of 『*Uijonggeumgam*(醫宗金鑒)』, including the past comments, annotations and Ogyeom(吳謙)'s annotations, corrections of 『*Sang-hanron*(傷寒論)』, 『*Geumgwe yoryak*(金匱要略)』.

This article translated the text associated with Gyejitang(桂枝湯) in 『*Jeongjeongjoonggyeongjeon seo*(訂正仲景全書)』

The main content is as shown below.

First, In the opinion of Ogyeom(吳謙) , Yangbu-eumyak(陽浮陰弱) should be understood as that Gi(氣) is upward in the defense aspect(衛分), and weak in the nutrient aspect(營分).

Second, how to take Gyejitang(桂技揚) is very important, He states correct ways of intaking Gyejitang(桂技揚).

Third, Gyejitang(桂技揚) has a different sweating mechanism from that of Mahwangtang(麻黃湯). Gyejitang(桂技揚) promotes the defense Gi(衛氣), thus, spreading out the healthy Gi(正氣) well.

Key Words : Ogyeom(吳謙), Uijonggeumgam(醫宗金鑒), *Sang-hanronju(傷寒論注),* Gyejitang(桂枝湯).

Ⅰ. 緖論

東漢末에 張仲景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傷寒雜病論』(이하 『傷寒論』으로 略稱)은 『黃帝內經』(이하 『內經』으로 略稱) 이후 最古의 한의학 經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인 저술 시기 및 저자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內經』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한의학의 辨證論治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환자의 치료에 중요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傷寒論』은 역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宋代 이후 많은 醫家들이 注를 달았고, 또한 각각의 傷寒學派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淸代의 저명한 醫家인 吳謙은 『醫宗金鑑』이라는 서적을 저술하면서,「醫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를 싣고 있다. 특히 『醫宗金鑑』은 淸代에 간행될 당시 의학교과서로 이용될 정도로 널이 읽혔다. 또한 「醫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도 「傷寒論」과 관련된 중요한 주석서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논자는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가운데 桂枝湯證과 관련된 원문에 대한 번역과 吳謙의 注에 대한 고찰 그리고 다른 주석가들과의 비교고찰 등을 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一. 번역에 사용된 저본은 중국 人民衛生出版社에서 출판한 『御纂醫宗金鑒』(武英殿版排印本)에 수록된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이다. 原書에 있는 순서대로 번역하였고, 原書에서는 簡體字가 사용되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모두 繁體字로 고쳤다.

二.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는 모두 17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太陽篇의 桂枝湯證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三. 원서에서는 각 조문에 번호를 달지 않았으나, 연구 및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조문 마다 번호를 逐條附記하였다.

四. 원래 吳謙이 저작한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의 글은 [원문], [按], [注], [集注], [方解], [集解] 등으로 표시하고, 논자의 글은 【해석】, 【고찰】, 【비교고찰】, 【詞解】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五. 처방의 구성 약물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약물의 용량 및 수치법 등을 '( )'처리하였다.

Ⅲ. 本論

[원문] 1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熱自發, 陰弱者汗自出, 嗇嗇惡寒, 淅淅惡風, 翕翕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

【해석】

太陽 中風은 脈이 陽에서는 浮하고 陰에서는 弱하니, 陽浮한 것은 열이 저절로 나고, 陰弱한 것은 땀이 저절로 난다. 오싹오싹 惡寒하고 선뜩선뜩 惡風하고 화끈화끈 發熱하며 코에서 소리가 나고 헛구역질하는 것은 桂枝湯으로 치료한다.

[注]

太陽中風, 卽上二條合而言之, 又詳擧其證以出其治也. 後凡稱太陽中風者, 皆指此脉此證也. 陰陽指榮衛而言, 非指尺寸浮沉也. 陽浮, 卽越人曰三菽之浮, 肺之浮也. 肺主皮毛, 取之而得者, 卽衛分之浮也. 六菽之浮, 心之浮也. 心主血脉, 取之而得者, 卽營分之浮也. 營分之浮較之衛分之浮, 則無力而弱, 故曰 : 陽浮而陰弱也. 衛爲風客, 則衛邪强而發熱矣. 故曰 : 陽浮者熱自發. 營受邪蒸, 則營不固而汗出矣. 故曰 : 陰弱者汗自出. 營衛不和, 則肌表疏緩, 故有嗇嗇之惡寒, 淅淅之惡風, 翕翕之發熱也. 然在皮膚之表, 非若傷寒之壯熱無汗, 惡寒雖近烈火而不減, 惡風雖處密室而仍畏也. 皮毛內合于肺. 皮毛不固, 風邪侵肺, 則氣壅而鼻鳴矣.

* 교신저자 : 方正均.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강원 원주시 우산동 660 번지.
E-mail : jkbang@sangji.ac.kr Tel : 033-730-0666.
접수일(2009년 4월 25일), 수정일(2009년 5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胸中者, 陽氣之本. 衛陽爲風邪所干, 不能敷布, 則氣上逆而爲乾嘔矣. 故宜桂枝湯, 解肌固表, 調和營衛也.

【해석】

太陽 中風은 바로 위의 두 조문을 합하여 말한 것인데, 또 그 證을 상세하게 들어 그 치법을 나타내었다. 뒤에 太陽中風이라고 칭하는 것은 모두 이 脈과 證을 가리키는 것이다. 陰陽은 營衛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尺寸의 浮沈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陽이 浮하다는 것은 바로 越人이 말한 三菽의 浮인 肺脈의 浮이다. 肺는 皮毛를 주관하므로, 脈을 取하여 얻은 것은 바로 衛分의 浮이다. 六菽의 浮는 心脈의 浮이니, 心은 血脈을 주관하므로 脈을 取하여 얻은 것은 즉 營分의 浮이다. 營分의 浮한 맥상은 衛分의 浮한 맥상과 비교하면, 無力하고 弱하므로, 陽은 浮하고 陰은 弱하다고 하였다. 衛分에 風邪가 들면, 衛分의 邪氣가 强해져서 發熱한다. 그러므로 陽이 浮한 것은 熱이 저절로 난다고 하였다. 營分이 邪氣의 蒸함을 받으면, 營이 견고하지 못해 땀이 난다. 그러므로 陰이 弱한 자는 땀이 저절로 난다고 하였다. 營衛가 조화롭지 못하면 肌表가 성글고 느슨하게 되므로, 오싹오싹한 惡寒과 선뜩선뜩한 惡風과 화끈화끈한 發熱이 있다. 그러나 피부의 表에 있기 때문에, 傷寒(麻黃湯證)의 壯熱無汗, 불에 가까이 가도 줄지 않는 惡寒, 밀실에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惡風과는 다르다. 皮毛는 안으로 肺에 合하므로 皮毛가 견고하지 않으면 風邪가 肺를 침범 하게 되니, 氣가 壅滯하여 코에서 소리가 나게 된다. 胸中은 陽氣의 근본이다. 衛陽이 風邪의 간섭을 받게 되면 氣가 上逆하여 헛구역질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桂枝湯으로 肌肉을 풀고 表를 굳건히 하여 營衛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

【고찰】

吳謙은 이 주에서 첫째, '陽浮而陰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의 '陰陽'이란 尺寸의 浮沈이 아닌 營衛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陽浮'는 '衛分의 浮'를 말하고, '陰弱'은 '營分의 浮'를 말하며, '陽浮而陰弱'은 營分의 浮한 맥상이 衛分의 浮한 맥상과 비교하여 無力하고 弱한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에 대해 '陽浮者, 熱自發'은 衛分에 風邪가 들어가 衛分의 邪氣가 强해져 發熱하는 것이고, '陰弱者, 汗自出'은 營이 邪氣의 蒸함을 받아 營이 굳건하지 못해 땀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嗇嗇惡寒, 淅淅惡風, 翕翕發熱'은 피부의 表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傷寒에서 나타나는 壯熱無汗, 惡寒, 惡風과는 다름을 말하고 있다. 넷째, '解肌固表, 調和營衛'라는 桂枝湯의 효능을 언급하고 있다.

[集注]

程應旄曰 : 嗇嗇惡寒者, 肌被寒侵, 怯而斂也. 淅淅惡風者, 肌因風灑, 疏難御也. 翕翕發熱者, 肌得熱蒸, 合欲揚也. 嗇嗇淅淅翕翕字 俱從皮毛上形容, 較之傷寒之見證, 自有浮沉淺深之別.

【해석】

정응모: 오싹오싹 惡寒하는 것은 肌肉이 寒邪의 침습을 받아 겁내어 숨는 것이다. 선뜩선뜩 惡風하는 것은 肌肉이 바람에 닿아, 성글어 잘 막지 못하는 것이다. 화끈화끈 發熱하는 것은 肌肉이 熱蒸을 받아, 합하여 날리고자 하는 것이다. 嗇嗇, 淅淅, 翕翕이라는 글자는 모두 皮毛上에서의 증상을 형용하는 말로서, 傷寒에서 보이는 證과 비교할 때 浮沈과 淺深의 차이가 있다.

【비교고찰】 陽浮而陰弱

陽浮而陰弱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대의 주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成無已는 "陽脈이 浮한 것은 衛分에 風이 적중한 것이고, 陰脈이 弱한 것은 營氣가 弱한 것이다."[1]라고 하여, 陽浮를 衛分에 風이 적중하여 陽脈이 浮한 것으로 보고, 陰弱을 營氣가 弱한 것으로 보았다.

方有執은 "關脈의 앞은 陽이고, 外도 陽이고, 衛도 陽이다. 風邪가 衛에 적중하면 衛가 實해지고, 實해지면 太過하게 되고, 太過하면 强해진다. 그러나 衛氣는 본래 脈外를 行하는데, 또 陽邪를 얻어 밖에서 强한 것을 助長하게 되니, 그 氣가 더욱 外浮하여 脈이 그 때문에 陽浮하게 된다. 關脈의 뒤는 陰이고, 안도 陰이고, 營도 陰이다. 營은 다른 이유가 없으면

1) 成無已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 "陽脈浮者, 衛中風也. 陰脈弱者, 榮氣弱也."

衛에 비하여 미치지 못하는데, 미치지 못하면 不足하고 不足하면 弱하게 된다. 營은 본래 脈의 속을 다니는데, 돕는바가 없어 단지 이것이 안에서 부족하면, 그 氣가 더욱 안에서 弱해져, 脈이 그 때문에 陰弱하다."[2]라고 하여, 寸脈(關前)이 浮하고 尺脈(關後)이 寸脈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았다.

喩昌은 "陽浮陰弱은 아래 문장의 衛强營弱과 같은 뜻이다."[3]라고 하여, 陽浮而陰弱은 일종의 病機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柯琴은 "陽浮라는 것은 浮하고 힘이 있는 것으로, 이를 陽이라고 이름 한다. 風은 陽邪이니, 이 浮脈은 風脈이다. 陽이 盛하면 陰이 虛하니, 깊이 누르면 약하다."[4]고 하여 陽浮而陰弱을 얕은 부위의 脈이 浮하고 힘이 있고, 깊이 누르면 脈이 弱한 것이라 보았으니, 陰陽을 脈의 深淺으로 보았다.

정응모는 "陰陽은 浮沈으로 말한 것이고, 尺寸을 말한 것이 아니다."[5]라고 하여, 陰陽의 의미가 浮沈의 뜻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였다.

[원문] 2

枝枝湯方

桂枝(三兩) 芍藥(三兩) 甘草(炙,二兩) 生姜(切,三兩) 大棗(擘,十二枚)

上五味, 咀三味, 以水七升, 微火煮取三升, 去滓, 適寒溫, 服一升. 服已須臾[6], 啜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 溫覆令一時許, 遍身漐漐, 微似有汗者益佳, 不可令如水流漓, 病必不除. 若一服汗出病差, 停後服, 不必盡劑 ; 若不汗, 更服, 依前法 ; 又不汗, 後服, 當小促其間, 半日許, 令三服盡. 若病重者, 一日一夜周時觀之. 服一劑盡, 病證猶在者, 更作服. 若汗不出者, 乃服至二三劑. 禁生冷、粘滑、肉麵、五辛、酒酪、臭惡等物.

【교감】

『仲景全書』에는 '桂枝(三兩) 芍藥(三兩) 甘草(炙,二兩) 生姜(切三兩) 大棗(擘,十二枚)'이 '桂枝三兩去皮味辛熱 芍藥三兩味苦酸微寒 甘草二兩炙味甘平 生薑三兩切味辛溫 大棗十二枚擘味甘溫'으로 되어 있다.

『仲景全書』에는 '咀三味'이 '㕮咀'라 되어 있다.

『仲景全書』에는 '啜'이 '歠'이라 되어 있다.

【해석】

桂枝湯方

桂枝 3兩, 芍藥 3兩, 甘草 炙한 것 2兩, 生薑 자른 것 3兩, 大棗 쪼갠 것 12枚

위의 다섯 가지 약재 중 세 가지 약재를 썰은 뒤, 물 7되로 약한 불에 3되가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온도를 적당하게 하여 1되를 복용한다. 복약을 마치고, 잠시 있다가 뜨거운 묽은 죽을 1되정도 마셔 藥力을 보조하고, 이불을 2시간 정도 따뜻하게 덮어 온몸에 축축하게 땀이 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데, 물이 흐르듯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리하면 반드시 병이 낫지 않는다. 만일 한번 복용하여 땀이 나오고 병이 나으면, 뒤의 복약은 중지하면 되니 반드시 약을 다 먹을 필요는 없다. 만일 땀이 나지 않으면, 처음 방법으로 다시 약을 복용하고, 그래도 땀이 나지 않으면 뒤의 복약은 약간 시간을 단축하여 반나절에 세 번 복용을 다하도록 한다. 만일 병이 심한 자는 하루 종일 수시로 관찰한다. 1제를 다 복용하였는데, 병증이 아직 있는 자는 다시 약을 지어 복용한다. 만일 땀이 나지 않으면 이에 2,3제를 복용한다. 生冷、粘滑、肉麵、五辛、酒酪、臭惡한 음식물 등은 먹지 말아야 한다.

[按]

桂枝湯方, 桂枝下有"去皮"二字. 夫桂枝氣味辛甘, 全在于皮, 若去皮, 是枯木矣, 如何有解肌發汗之功?

---

2) 聶惠民, 王慶國, 高飛 編集.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203.
"關前陽, 外爲陽, 衛亦陽也. 風邪中於衛則衛實, 實則太過, 太過則强. 然衛本行脈外, 又得陽邪而助之强於外, 則其氣愈外浮, 脈所以陽浮. 關後陰, 內爲陰, 榮亦陰也. 榮無故, 則榮比之衛爲不及, 不及則不足, 不足則弱. 然榮本行脈內, 又無所助, 而但是不足於內, 則其氣愈內弱, 脈所以陰弱."

3) 劉渡舟 編.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君出版社. 1988. p.205.
"陽浮陰弱, 如下文衛强營弱同意."

4) 劉渡舟 編.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君出版社. 1988. p.205.
"陽浮者, 浮而有力, 此名陽也 風爲陽邪, 此浮爲風脈, 陽盛則陰虛, 沈按之而弱."

5) 劉渡舟 編.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君出版社. 1988. p.205.
"陰陽以浮沈言, 非以尺寸言."

6) 蔡仁植 著. 傷寒論譯詮. 서울. 高文社. 1971. p.18. "須臾란 《飜譯名義》에 一晝夜를 三十須臾라 하고, 또 一呼吸이 一羅婆이고 三十羅婆가 一須臾라 하여 前後의 말이 서로 다르므로 신빙할 수 없고, 服藥方法上으로 볼 때도 맞지 않으므로 大略 15分으로 定하는 것이 옳을까 한다."

宜刪此二字.後仿此.

【해석】

桂枝湯方에 桂枝의 아래에 “去皮”두 글자가 있다. 그런데 桂枝의 氣味가 辛甘한 것은 온전히 껍질에 있는데, 만일 껍질을 제거한다면 이것은 말라 죽은 나무일뿐이니, 어떻게 解肌發汗하는 효능이 있을 수 있겠는가? 두 글자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뒤의 처방에서도 이와 같다.

【고찰】

吳謙은 桂枝는 껍질에 解肌發汗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래 있던 ‘去皮’ 두 글자는 빼야한다고 보고 있다.

[方解]

名曰桂枝湯者, 君以桂枝也. 桂枝辛溫, 辛能發散, 溫通衛陽. 芍藥酸寒, 酸能收斂, 寒走陰營. 桂枝君芍藥, 是于發汗中寓斂汗之旨；芍藥臣桂枝, 是于和營中有調衛之功. 生薑之辛, 佐桂枝以解表；大棗之甘, 佐芍藥以和中. 甘草甘平, 有安內攘外之能, 用以調和中氣, 卽以調和表裏, 且以調和諸藥. 以桂芍之相須, 薑棗之相得, 藉甘草之調和, 陽表陰裏, 氣衛血營, 幷行而不悖, 是剛柔相濟以相和也. 而精義在服後須臾啜稀粥以助藥力. 盖穀氣內充, 不但易爲釀汗, 更使已入之邪不能少留, 將來之邪, 不得復入也. 又妙在溫覆令一時許, 漐漐微似有汗, 是授人以微汗之法也, 不可令如水流漓, 病必不除, 是禁人以不可過汗之意也. 此方爲仲景群方之冠, 乃解肌發汗, 調和營衛之第一方也. 凡中風, 傷寒, 脉浮弱, 汗自出而表不解者, 皆得而主之. 其他但見一二證卽是, 不必悉具. 故麻、葛、靑龍發汗諸劑, 咸用之也. 若汗不出, 麻黃證也. 脉浮緊, 麻黃脉也. 固不可與桂枝湯. 然初起無汗, 已用麻黃發汗, 汗解後復煩, 脉浮數者；與下後脉仍浮, 氣上衝者；及下後下利止, 而身痛不休者, 經中皆用此以解外. 誠以此時表雖未解, 腠理已疏, 邪不在皮毛, 而在肌肉. 且經汗下, 津液已傷, 故脉證雖同麻黃, 而主治當屬桂枝也. 粗工妄謂桂枝湯專治中風, 不治傷寒, 使人疑而不用. 又謂專走肌表, 不治他病. 不知此湯, 倍芍藥、生薑, 加人參, 名桂枝新加湯, 用以治榮表虛寒, 肢體疼痛；倍芍藥加飴糖, 名小建中湯, 用以治裏虛心悸, 腹中急痛；再加黃芪,名黃芪建中湯, 用以治虛損虛熱、自汗盜汗. 因知仲景之方, 可通治百病也. 適寒溫服, 啜熱稀粥以助藥力, 欲使穀氣內充, 易爲釀汗也. 溫覆令一時許, 微似有汗, 不令如水流漓, 謂不可過汗也. 盖取汗, 在不緩不急, 不多不少. 緩則邪必留連, 急則邪反不盡. 汗多則亡其陽, 汗少則病必不除. 若一服汗出病差, 謂病輕者, 初服一升病卽解也. 停後服, 不必盡劑, 謂不可再服第二升, 恐其過也. 若不汗, 更服, 依前法, 謂初服不汗出未解, 再服一升, 依前法也. 又不汗後服, 謂病仍不解, 後服第三升也. 小促其間, 半日許令三服盡, 謂服此第三升, 當小促其服, 亦不可太緩, 以半日三時許爲度, 令三服盡, 始適中其服之宜也. 若病重者, 初服一劑, 三升盡, 病不解, 再服一劑, 病猶不解, 乃更服三劑, 以一日一夜周十二時爲度, 務期汗出病解而後已. 後凡有曰依服桂枝湯法者, 卽此之謂也.

【해석】

桂枝湯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君藥이 桂枝이기 때문이다. 桂枝는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니, 매운 맛은 發散시킬 수 있고, 따뜻한 성질은 衛陽을 通하게 한다. 芍藥은 맛이 시고 성질이 찬데, 신맛은 收斂할 수 있고 찬 성질은 陰營으로 달려간다. 桂枝는 芍藥의 君이 되는데, 이는 發汗시키는 가운데 땀을 收斂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芍藥은 桂枝의 臣이 되는데, 이는 營氣를 조화롭게 하는 가운데 衛氣를 調理하는 효능이 있는 것이다. 生薑의 매운 맛은 桂枝를 보좌하여 表를 풀고, 大棗의 단 맛은 芍藥을 보좌하여 中焦를 調和롭게 한다. 甘草는 맛이 달고 성질이 平하여, 속을 편안하게 하고 外邪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어 中氣를 조화롭게 하는데 쓰이는데, 이는 바로 表裏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藥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桂枝와 芍藥의 相須함과, 生薑과 大棗의 相得함, 그리고 甘草의 조화롭게 하는 효능으로 인해 (桂枝湯이) 陽表와 陰裏, 氣分인 衛分과 血分인 營分에 함께 운행하면서 어그러지지 않게 되니, 이는 剛柔가 서로 구제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잠시 후 묽은 죽을 마셔 藥力을 돕는다는 것에 정밀한 뜻이 있다. 대개 穀氣가 안에 충실하면 쉽게 땀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침입한 邪氣는 잠시도 머물지 못하게 하고, 장차 침입할 邪氣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또 이불을 약

2시간 정도 따뜻하게 덮어 축축하게 땀이 나도록하는데 오묘한 이치가 있으니, 이는 땀을 약간 내게 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땀을 내서는 안 되니, 병이 반드시 낫지 않는다'는 것은 땀을 과도하게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처방은 仲景의 여러 처방중 으뜸이 되는 것으로, 바로 解肌發汗하고, 調和營衛하는 제일의 처방이다. 대개 中風과 傷寒에 脈이 浮弱하고, 自汗이 나면서 表가 풀리지 않은 사람에게 모두 쓸 수 있다. 그 다른 증상들은 한두 개만 보이면 이 처방을 쓸 수 있으니, 모든 증상이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麻黃湯, 葛根湯, 靑龍湯 등의 發汗시키는 약들은 모두 이 桂枝를 쓴다. 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麻黃湯證이고 脈이 浮緊하면 麻黃湯證의 脈이니, 절대로 桂枝湯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음 병이 발생하여 땀이 없을 때 이미 麻黃湯을 사용하여 땀을 나게 하였는데, 땀이 나서 풀어진 뒤에 다시 가슴이 달아오르고 脈이 浮數한 사람, 下法을 쓴 후 脈이 여전히 浮하고 氣가 上衝하는 사람, 下法을 쓰고 나서 下利는 멎었으나 身痛이 멎지 않는 사람에게 『傷寒論』에서는 모두 이 桂枝湯을 주어서 겉을 풀어주었다. 진실로 이상의 증상들은 表가 비록 아직 풀어지지 않았지만, 腠理가 이미 성글어져 邪氣가 皮毛에 있지 않고 肌肉에 있기 때문이다. 또 汗法과 下法을 써서 津液이 이미 손상되었으므로, 脈과 證은 비록 麻黃湯證과 같으나 主治證은 당연히 桂枝湯證에 속한다. 실력 없는 의사가 함부로 桂枝湯은 오로지 中風을 치료하고 傷寒은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여, 사람들이 미심쩍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오로지 肌表에만 작용하고, 다른 병은 치료하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 이는 이 桂枝湯에 芍藥과 生薑을 倍로하고, 人蔘을 加하면 桂枝新加湯이라 부르는데 榮表의 虛寒과 肢體 疼痛을 치료하고, 芍藥을 倍로하고 飴糖을 加하면 少建中湯이라 부르는데 裏虛心悸와 腹中急痛을 치료하는데 쓰고, 다시 여기에 黃芪를 加하면 黃芪健中湯이라 부르는데 虛損虛熱과 自汗盜汗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仲景의 처방으로 모든 病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를 적당하게 하여 복용하고, 뜨거운 묽은 죽을 마셔 藥力을 보조하는 것은 穀氣가 안에서 충실해져 쉽게 땀이 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불을 약 2시간 정도 따뜻하게 덮어 약간 땀이 나도록 하되, 물 흐르듯 땀이 나게 하지 않는 것은 땀을 과도하게 내서는 안 됨을 말하는 것이다. 대개 땀을 내는 것은 너무 弱하거나 急하거나, 너무 많거나 적어서는 안 된다. 너무 약하게 땀을 내면 邪氣가 반드시 남아 있게 되고, 急하게 땀을 내면 邪氣가 도리어 다 없어지지 않는다. 땀이 많이 나오면 陽氣를 손상하고, 땀이 적게 나오면 병이 반드시 제거되지 않는다. '만일 한번 약을 복용해서 땀이 나오고 병이 나으면' 이라 한 것은 병이 輕微한 사람이 처음 1되를 복용하여 병이 바로 풀린 경우를 말한다. '뒤의 복약은 멈추고 반드시 다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은 2되째는 다시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 藥力이 지나칠까 염려한 것이다. '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다시 처음의 방법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처음의 복용으로는 땀이 나지 않아 병이 풀리지 않으면 다시 1되를 같은 방법으로 복용하라는 말이다. 또 '땀이 나지 않으면 뒤의 복약을 한다'는 것은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세 번째 1되를 복용하라는 것이다. '약간 시간을 단축하여 반나절에 세 번 복용을 다한다'는 것은 세 번째 1되를 복용할 때 조금 촉박하게 하여 너무 느긋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니 반나절 (여섯 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세 번 복용을 마쳐 복약의 마땅한 법에 맞게 한다는 말이다. 만일 병이 심한 사람은 처음 1劑 3되를 다 복용하고, 병이 풀어지지 않으면 다시 1劑를 복용하며, 병이 여전히 풀어지지 않으면 바로 다시 세 번째 1劑를 복용하여, 하루 24시간을 법도로 삼아 땀이 나고 병이 풀어지는 것을 기약한 후에 복약을 멈춘다. 뒤에 桂枝湯 복용법에 의거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방법을 이르는 말이다.

【고찰】

이 方解를 살펴보면, 첫째, 桂枝湯 구성 약재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복약 후 묽은 죽을 마시는 이유에 대하여, 穀氣가 안에서 충실해져 쉽게 땀이 나오게 하고, 이미 침입한 邪氣를 내쫓고 장차 침입할 邪氣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복약 후에 이불을 덮어 땀을 내는데, 약간만 내야하

고 많이 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桂枝湯을 응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처음 병이 발생하여 땀이 나지 않아 이미 마황탕을 사용하여 땀을 나게 했는데, 땀이 나서 풀어진 뒤에 다시 가슴이 달아오르고 脈이 浮數한 사람에게 桂枝湯을 쓰고, 下法을 쓴 후 脈이 아직 浮하고 氣가 上衝하는 사람에게 桂枝湯을 쓰고, 또 下法을 쓰고 나서 下利는 멎었으나 身痛이 멎지 않은 사람에게 桂枝湯을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桂枝湯이 肌表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桂枝湯 變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桂枝湯에 芍藥과 生薑을 倍로하고 人蔘을 더하면 계지신가탕이라 부르는데 營表의 虛寒과 肢體疼痛을 치료하고, 또 芍藥을 倍로하고 飴糖을 加하면 少建中湯이라 부르는데 裏虛心悸와 腹中急痛을 치료하고, 그리고 少建中湯에 다시 黃芪를 加하면 黃芪健中湯이라 부르는데 虛損虛熱과 自汗盜汗을 치료하는데 쓴다고 하였다. 여섯째, 桂枝湯 원문에 나온 그 외의 복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문] 3

太陽病, 發熱汗出者, 此爲榮弱衛强, 故使汗出. 欲救邪風者, 宜桂枝湯.

【해석】

太陽病에 發熱 汗出하는 자는 이는 營은 弱하고 衛는 强하므로 땀이 나게 하는 것이다. 邪風을 구하려 하는 자는 桂枝湯이 마땅하다.

[注]

此釋上條陽浮陰弱之義也. 經曰：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衛爲風入則發熱, 邪氣因之而實, 故爲衛强, 是衛中之邪氣强也. 營受邪蒸則汗出, 精氣因之而虛, 故爲營弱, 是營中之陰氣弱也. 所以使發熱汗出也, 欲救邪風者, 宜桂枝湯.

【해석】

이 조문은 위 조문의 陽浮陰弱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經[7]에 말하기를 邪氣가 盛하면 實하고, 精氣가 奪하면 虛하다고 하였다. 衛分은 風이 침입하면 發熱하고, 邪氣가 그로 인해 實해진다. 그러므로 衛强이 되니 이것은 衛中의 邪氣가 强한 것이다. 營이 邪氣의 蒸함을 받으면 땀이 나오고, 精氣가 그로 인해 虛해진다. 그러므로 營弱이 되니, 이는 營中의 陰氣가 弱한 것이다. 때문에 發熱 汗出하게 되는 것이니, 邪風을 치료하고자 하는 자는 桂枝湯이 좋다.

【고찰】

吳謙은 이 조문이 위 조문에 나온 '陽浮而陰弱'의 뜻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營弱衛强에 대해 설명하기를, 衛가 風邪의 침입으로 發熱하고 邪氣가 實해지므로 衛强이라고 하였고(衛中邪氣强), 營이 邪氣의 蒸함을 받아 땀이 나오고 正氣가 그로 인해 虛해져 營弱(營中陰氣弱)이라고 설명하였다.

[集注]

方有執曰：上言陽浮而陰弱, 此言營弱衛强. 衛强卽陽浮, 營弱卽陰弱, 彼此互言而互相發明者也. 救者, 解救救護之謂. 不曰風邪, 而曰邪風者, 以本體言也.

【해석】

방유집: 위에서 陽은 浮하고 陰은 弱하다고 말하고, 여기서 營은 弱하고 衛는 强하다고 말하였다. 衛가 强하다는 것은 곧 陽이 浮한 것이고, 營이 弱하다는 것은 곧 陰이 弱한 것이니, 두 가지를 함께 말하여 서로 발명한 것이다. 救라는 것은 풀어주어 구제함, 구제하여 보호함을 이르는 것이다. 風邪라고 하지 않고, 邪風이라고 말한 것은 本體로서 말한 것이다.

[원문] 4

病人臟無他病, 時發熱自汗出而不愈者, 此衛氣不和也. 先其時發汗則愈, 宜桂枝湯.

【해석】

병든 사람이 藏(裏)에 다른 병이 없고, 때로 發熱하며 自汗이 나오면서 낫지 아니한 자는 이는 衛氣가 和하지 못한 것이다.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發汗시키면 나으니, 桂枝湯이 마땅하다.

[注]

此釋上條榮衛不和之證, 而又就其時發熱汗出者, 以明其治也, 臟, 裏也. 無他病, 謂裏無他病也.有時發熱,

7)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08. 『素問·通評虛實論』을 가리킨다.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有時不熱, 有時汗出, 有時不汗出, 其表病流連而不愈者, 非榮不和, 是衛强不與榮和也. 當于未熱未汗之時, 預用桂枝湯解肌發汗, 迎而奪之, 以遏其勢, 則熱退汗斂, 而病自愈矣.

【해석】

이 조문은 위 조문의 營衛가 조화롭지 못한 證을 설명하고, 또 때때로 發熱하며 汗出하는 것을 따라 그 치법을 밝힌 것이다. 藏은 裏이다. 다른 병이 없다는 것은 속에 다른 병이 없음을 말한다. 熱이 있다 없다 하고 自汗이 있다 없다 하여 그 表病이 흘러 계속되어 낫지 않은 것은 榮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 衛가 强하여 營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아직 熱이 없고 땀이 나지 않을 때, 미리 桂枝湯을 써서 解肌發汗시켜 맞이하여 빼앗아(迎而奪之) 그 세력을 막는다면, 熱이 물러가고 땀이 수렴되어 병이 저절로 낫는다.

【고찰】

吳謙은 이 조문이 위 조문의 '營衛不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衛가 强하여 營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營衛不和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陽邪인 風邪가 陽部인 衛氣를 침습하여 衛氣는 强하지만 營氣는 조화롭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니, 三綱鼎立학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문의 여러 구절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藏無他病'에서의 '臟'을 裏라고 하여, '속에 다른 병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였고, 또 衛氣不和에 대해 '衛가 强하여 營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고, '先其時' 의 '其時'를 '아직 熱도 없고, 땀도 나지 않는 때'라고 설명하였다.

[集注]

方有執曰 : 時以暫言. 衛氣不和者, 表有邪風而不和也. 先其時者, 言于未發熱之先也.

程知曰 : 陰虛諸病, 亦時發熱自汗. 若裏無他病, 而時熱自汗, 則爲衛受風邪, 未得解散, 宜于將發之時, 先用桂枝湯乘其欲動而擊之.

程應旄曰 : 桂枝爲解肌之劑, 而有時云發汗者, 何也? 以其能助衛氣升騰, 使正氣得宣而汗出, 與麻黃湯逐邪氣, 使汗從外泄者不同.

汪琥曰 : 及其發熱自汗之時, 用桂枝湯發汗則愈. 苟失其時, 則風邪入裏, 病熱必深, 桂枝湯非所宜矣.

【해석】

방유집: '時'는 잠깐을 말한다. 衛氣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表에 邪風이 있어 조화롭지 못한 것이다. '先其時'는 아직 發熱하기 전을 말한다.

정지: 陰虛로 인한 많은 병에도 또한 때로 發熱하고 自汗한다. 만약 속에 다른 病이 없는데, 때로 熱이 나고 自汗한 것은 衛가 風邪를 받아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장차 그 증상이 생기려고 할 때 먼저 桂枝湯을 써서 그 動하려는 것을 올라타 공격해야 한다.

정응모: 桂枝湯은 解肌하는 처방인데, 때로 發汗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 인가? 桂枝湯이 衛氣가 升騰하는 것을 도와 正氣를 잘 퍼지게 하여 땀이 나게 하기 때문이니, 麻黃湯이 邪氣를 몰아내어 땀으로 나가게 하는 것과 다르다.

왕호: 그 發熱하고 自汗할 때에 桂枝湯으로 發汗하면 낫는다. 진실로 그 때를 잃으면 風邪가 안으로 들어가 病熱이 반드시 심해지므로, 이때는 桂枝湯은 좋지 않다.

[원문] 5

病常自汗出者, 此爲榮氣和. 榮氣和者外不諧, 以衛氣不共榮氣諧和故爾. 以榮行脉中, 衛生脉外,復發其汗, 榮衛和則愈, 宜桂枝湯.

【해석】

병에 항상 自汗이 나는 자는 이것은 營氣만 조화로운 것이다. 營氣만 조화로운 자는 밖으로는 조화롭지 못한 것이니, 衛氣가 營氣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한 때문이다. 營氣는 脈中으로 行하고 衛氣는 脈外로 行하므로, 다시 그 땀을 내어 營氣와 衛氣가 조화되면 낫는 것이니, 桂枝湯이 적당하다.

[注]

此又釋上條榮衛所以不和之義也. 言病有時常自出汗者, 此爲榮氣已和也. 榮氣和而熱仍不解者, 則是衛外之氣猶不諧, 而不與榮氣共和諧也. 所以榮氣雖和, 而時時自汗出, 病猶不解也. 盖以榮行脉中, 衛行脉外, 衛不和, 則榮雖和而病不解. 故復發其汗以抑衛而和榮, 榮衛和而病自愈矣. 亦宜桂枝湯.

【해석】

이 조문은 위 조문의 營衛가 조화롭지 못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病에 항상 自汗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營氣는 이미 조화로운 것이다. 營氣가 조화로운데 熱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은 衛外의 氣가 여전히 조화롭지 못하여, 營氣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營氣가 비록 조화롭지만 항상 自汗이 나는 것이니, 병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대개 營은 脈中을 行하고 衛는 脈外를 行하니, 衛가 조화롭지 못하면 營이 비록 조화로워도 병이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 땀을 내어 衛를 억제하고 營을 조화롭게 하여, 營衛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병이 저절로 낫는다. 또한 桂枝湯이 좋다.

【고찰】

吳謙은 이 조가 위 조문의 營衛가 조화롭지 못하다고 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營衛不和의 의미를 營氣만이 조화롭고 衛氣가 營氣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땀은 나지만 병이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라 보았으며, 桂枝湯으로 땀을 내어 營衛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병이 저절로 낫는다고 설명하였다.

[集注]

方有執曰：此與上條同. 上以暫言, 此言常者, 謂無時不然也. 上言臟, 臟爲陰而主裏. 此言榮, 榮亦陰而主裏. 以暫言, 故其詞略；以常言, 故其詞詳. 兩相互發, 義不殊也.

喩昌曰：此明衛受邪風, 榮自汗出之理. 凡汗出榮和, 而發熱不解, 是衛强不與榮和也. 復發其汗, 伸風邪從肌竅外出, 斯衛不强而與榮和矣. 正如中酒發狂, 酒去其人帖然也. 榮受寒邪, 不與衛和, 宜麻黃湯亦然.

吳人駒曰：上條發作有時, 此則無時. 而不自汗出, 但熱不解者, 亦屬榮衛不和. 盖榮衛相得之爲和, 而榮不得獨爲之和也.

張錫駒曰：衛氣者, 所以肥腠理, 司開闔, 衛外而爲固也. 今受邪風, 不能衛外, 故常自汗出而熱不解, 此爲榮氣和而衛不和也.

魏荔彤曰：前以桂枝解肌者, 和其衛而時發熱之熱止；此以桂枝發汗者, 和其衛而常自汗之汗止. 盖發其表而熱解矣. 故總結之曰：榮衛和則愈.

【해석】

방유집: 이 조문은 위 조문과 의미가 같다. 위 조문은 잠시라고 말하였고, 여기서는 항상이라고 말하였으니, 그렇지 않은 때가 없음을 말한다. 위에서 藏을 말하였는데, 藏은 陰이고 裏를 주관한다. 여기서는 營을 말하였는데, 營 또한 陰이고 裏를 주관한다. 잠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간략하고, 항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상세하다. 두 조문은 서로 발명해주니 뜻이 다르지 않다.

유창: 이 조문은 衛가 邪風을 받았는데 營分에서 自汗이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대개 땀이 나서 營이 조화롭게 되었는데, 發熱하고 병이 풀리지 않는 것은 衛가 强하여 營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땀을 내어 거듭 風邪가 肌竅를 따라 밖으로 나오면, 이에 衛가 强하지 않아 營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바로 술에 취해 발광하다가 술이 깨면 그 사람이 帖然한 경우와 비슷하다. 營이 寒邪를 받아 衛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麻黃湯을 쓰는 것도 또 그런 경우이다.

오인구: 위의 조에서는 발작하는 것이 일정한 때가 있는데, 이 조에서는 일정한 때가 없다. 그래서 自汗이 나지 않고 단지 熱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니, 또한 營衛가 조화롭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대개 營衛가 서로 얻어 조화를 이루면, 營만 홀로 조화를 이루게 되지는 않는다.

장석구: 衛氣라는 것은 腠理를 살찌우고, 開闔을 주관하고, 밖을 호위하여 굳건하게 한다. 지금 邪風을 받아 밖을 호위하지 못하므로 항상 自汗이 나고 熱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는 營은 조화로우나 衛는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려동: 앞 조문에서 桂枝湯으로 解肌한 것은 그 衛를 조화롭게 하여 때로 發熱하는 熱을 멎게 한 것이고, 이 조에서 桂枝湯으로 發汗시킨 것은 그 衛를 조화롭게 하여 항상 自汗하는 땀을 멎게 한 것이다. 대개 그 表를 發하게 하면 熱이 풀어진다. 그러므로 총결하여 營衛가 조화로워지면 낫는다고 말한 것이다.

Ⅳ. 結論

이상의 桂枝湯證의 내용 가운데 “陽浮而陰弱”의 내용과 桂枝湯의 方解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한다.

吳謙은 “양부이음약”에 대해 ‘음양’이란 尺寸의 浮沈이 아닌, 營衛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고, ‘양부’는 ‘위분의 부’를 말하고, ‘음약’은 ‘영분의 부’를 말하며, ‘양부이음약’은 영분의 부한 맥상이 위분의 부한 맥상과 비교하여 무력하고 약한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桂枝湯에 대해서는 먼저 桂枝에 대해 “去皮”하라고 한 것을 반박하였다. 吳謙은 桂枝湯의 解肌發汗의 효능은 주로 桂枝의 껍질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복약 후 묽은 죽을 마시는 이유에 대하여, 곡기가 안에서 충실해져 쉽게 땀이 나오게 하고, 이미 침입한 사기를 내쫓고 장차 침입할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복약 후에 이불을 덮어 땀을 내는데, 약간만 내야 하고, 많이 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中風이나 傷寒에 관계없이 脈이 浮弱하고 自汗이 나면서 表가 풀리지 않은 경우 桂枝湯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병이 발생하여 땀이 없을 때, 이미 麻黃湯을 사용하여 땀을 나게 했는데, 땀이 나서 풀어진 뒤에 다시 가슴이 달아오르고 脈이 浮數한 사람에게 桂枝湯을 쓰고, 下法을 쓴 후 脈이 아직 浮하고 氣가 上衝하는 사람에게 桂枝湯을 쓰고, 또 下法을 쓰고 나서 下利는 멎었으나 身痛이 멎지 않은 사람에게 桂枝湯을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계지탕의 변방을 설명하였다. 즉, 桂枝湯에 芍藥과 生薑을 倍로하고 人蔘을 더하면 계지신가탕이라 부르는데 營表의 虛寒과 肢體疼痛을 치료하고, 또 芍藥을 倍로하고 飴糖을 加하면 少建中湯이라 부르는데 裏虛心悸와 腹中急痛을 치료하고, 그리고 少建中湯에 다시 黃芪를 加하면 黃芪健中湯이라 부르는데 虛損虛熱과 自汗盜汗을 치료하는데 쓴다고 하였다.

한편, 吳謙은 ‘營衛不和’의 의미에 대해서 衛가 强하여 營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陽邪인 風邪가 陽部인 衛氣를 침습하여 衛氣는 强하지만 營氣는 조화롭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니, 三綱鼎立학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1. 吳謙 等 編. 御纂醫宗金鑒.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2. 攝惠民, 王慶國, 高飛 編集.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203.
3. 成無已 著.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
4. 劉渡舟 編.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君出版社. 1988. p.205.
5.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08.
6. 蔡仁植 著. 傷寒論譯詮. 서울. 高文社. 1971. p.18.